

##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 12월 21일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 전선에서 전면적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간고하고도 벅찬 투쟁을 벌려나가는 환경속에서 우리 당력사에서 다섯 번째로 되는 당세포위원장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기층조직중시의 독창적인 당건설로선을 밝히

시고 세포를 비롯한 기층당조직들을 강화하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전에 늘 당의 조직사상적공고성과 위력, 당의 로선과 방침의 철저한 관철은 당세포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말단기층조직인 세포를 강화하는 사업은 곧 조선로동당의 권위를 보장하고 우리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전투력을 높이는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교시하곤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당건설로선과 기층조직중시사상을 높이 받들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고 세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소집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세포위원장들, 전체 당원들의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아 비범한 예지와 결출한 령도력으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필승불패의 전투적참모부,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삼가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최근 우리 공화국핵무력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정치구도와 전략적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고 하시면서 조선반도정세와 우리를 둘러싼 제반 국제정치정세를 통보하시고 미국에 실제적인 핵위협을 가할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게 되였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의 진전로상에는 결코 무시할수 없는 도전들이 앞에 가로놓이고있지만 이를 막아내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이러한 정세하에서 오히려 우리 혁명의 전진발전을 락관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조성된 현정세가 우리를 보다 더 단결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주체화, 자립화를 내들고 자력으로 발전해나갈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로 된다고 하시면서 신심을 가지고 앞날을 락관하며 웃으며 투쟁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최근 당중앙이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주객관적조건들과 정세전망에 대하여 종합분석하고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를 열고 우리 혁명의 전면적부흥을 가속하기 위한 거창하고도 섬세한 방략과 독창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을 내놓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인민이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일어나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커다란 전진과 변혁을 이룩해나가고있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적들의 비렬한 반공화국책동에 의하여 모든것이 부족하고 난관과 시련이 겹쌓이는 속에서도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

적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빛나게 실현되었으며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에 기초한 사회주의자립경제토대와 자급자족의 경제구조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문화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올해에도 인민경제 주요부문들에서 년간계획을 완수한 단위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알곡과 과일생산에서 전환이 일어났으며 우리 힘과 기술로 새형의 화물자동차와 트랙터, 농기계시제품들을 생산하고 많은 경공업공장들이 개건현대화되어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이 생산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국가와 인민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극악한 제재압박속에서도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순간의 침체도 없이 줄기차게 추진된것은 력사의 기적이며 이 기적을 안아온 위대한 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신뢰심은 더욱 두터워지고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반석같이 다져졌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이 자랑스러운 승리와 성과들에 수천만 대중을 당중앙위원회와 혈맥으로 이어주고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려일으킨 당세포들과 세포위원장들의 충성과 헌신의 노력이 깃들어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중앙은 일편단심 당만을 따르며 산악같이 일떠서는 위대한 인민의 모습에서

전략목표점령을 위한 과감한 공격전을 전개하여 가증되는 미제의 침략과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비약적전진을 촉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이 현 시기 내세운 중대하고도 절박한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당세포위원장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번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이후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을 옹계 분석총화하고 모든 당세포들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충성의 대오로 만들며 이 사업에서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번 대회에는 군수공업부문과 인민경제 선행부문,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 단위들, 무력기관 산하단위들에서 사업하는 세포위원장들, 부문당위원장들, 각급 당위원회 책임일꾼들, 당일꾼들이 참가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번 대회가 당세포를 강화하고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광범한 군중속에 살아 움직이는 수십만의 당세포들과 세포위원장들을 보고있으며 커다란 고무적힘을 얻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말단기층조직을 책임지고 오직 당과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가며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대회참가자들과 전당의 당세포위원장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격동적이며 양양한 자세에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과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점령을 위한 과감한 공격전을 전개하여 가증되는 미제의 침략과 제재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비약적전진을 촉진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이 현 시기 내세운 중대하고도 절박한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당세포위원장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번 대회에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이후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이룩된 성과와 결함들을 옹계 분석총화하고 모든 당세포들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충성의 대오로 만들며 이 사업에서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이번 대회에는 군수공업부문과 인민경제 선행부문,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 단위들, 무력기관 산하단위들에서 사업하는 세포위원장들, 부문당위원장들, 각급 당위원회 책임일꾼들, 당일꾼들이 참가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번 대회가 당세포를 강화하고 당세포위원장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개회를 선언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 하여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인 12월 17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을 잃은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 태양의 성지 금수산태양 궁전은 심심한 애도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앞에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드린 꽃바구니가 진정되어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을 찾으시어 위대한 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로동당

을 존엄높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끝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우리 나라를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이 꽃피는 강대한 나라, 자주, 자립, 자위의 성새로 더 굳건히 다져나가기 위하여 장군님의 혁명전사답게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엄숙한 맹세를 다시시었다.

본사기자

##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 개막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가 12월 21일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원수님을 위시하여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성원들이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지도하기 위하여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순간 대회참가자들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의 혁명적 당건설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이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존엄과 위상을 높이 떨치시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개회사를 하시었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로동당 만세》의 노래가 주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원회 위원인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최룡해부위원장은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자주,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폭풍처럼 전진해나가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당세포중시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강화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 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당세포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당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력사

적인 결론을 하시고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서 기층당조직건설의 방향과 과업들을 제시하신것은 당세포강화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되었다.

전당강화의 지름길은 초급당과 당세포를 강화하는데 있다는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천명하신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께서는 전당에 당세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워주시고 각급 당조직들이 당세포사업을 적극 도와주며 세포위원장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그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가 있는 때로부터 지난 5년간은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즐기차게 전진시켜온 긍지높은 나날이었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최룡해부위원장은 오늘 우리앞에는 조

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당정책관철의 전위대로 튼튼히 꾸려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더욱 높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최룡해부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들에서는 일부 당세포들의 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이 언급되었다.

토론자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세포들을 우리 당을 받드는 억척불변의 초석으로, 당정책관철의 결사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안아올 불같은 결의들을 다짐하였다.

대회는 계속된다.

본사기자

# 탁 월 한 령 장 을 모 시 여

12월 30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6돐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사람들은 한 나라, 한 민족에게 있어서 탁월한 령장을 모시는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페부로 절감하고 있다.

령도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공화국이 세계무대에서 온갖 침략과 전횡을 마음대로 일삼는 횡포무도한 제국주의강대국인 미국과 당당히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한 외국인의 말을 들어보자. 《미국이 대규모전쟁연습을 벌리면서 어떻게 하나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벌의별 책동을 다하고있지만 김정은각하의 담력과 배짱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있다.》

그가 한 말처럼 위대한 령장이시며 천출명장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조선은 미국을 위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가 선택한 자주의 길을 변함없이 걸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는것이다.

순경은 영웅을 감추고 역경은 영웅을 드러낸다는 말이 있다. 그이께서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고 나라의 정사를 돌보신 나날은 불과 수년밖에 안되지만 기나긴 인류력사에 비하면 한순간에 불과한 이 수년 어간에 공화국은 원자탄에 이어 수소탄,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실현하는 력사적기적을 창조함으로써 나라와 인민의 안녕과 무궁번영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조선은 평화를 손에 넣었다.》, 《서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위협에 대해 매일같이 떠들고 있지만 조선의 핵억제력이 없

었더라면 미국은 핵전쟁을 일으켰을것이다. 아마도 세계는 조선의 핵억제력에 의해 구원되는것 같다.》는 찬탄의 목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세계가 다 보고 알고있듯이 지난 6년간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전쟁연습과 제재, 압살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올해에는 공화국의 《완전 파괴》까지 운운하며 핵전략 자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침략의 불을 지르려고 미쳐날뛰었다.

허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뛰어난 지략, 탁월한 령군술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은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서술

푸른 기상앞에 감히 선불질을 못하고있다.

위대한 령장의 슬하에 강군이 있고 민족의 존엄과 강대성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으시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백과전서적인 군사적식견과 창조적안목, 신비한 통찰력과 판단력은 그이의 특출한 자질이다.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지략은 천리해안의 과학적통찰력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신묘한 전략전술로 도전세력의 기도를 시초에 무자비하게 제압하는 무혈전승의 공격방략이며 그 어떤 불리한 정세도 역전시켜 유리한 국면을 펼쳐는 강위력한 보검이다.

그이께서 이어가신 전선시찰

의 날들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합동 타격훈련을 지도하신 날도 있고 적아대결의 최전방인 판문점초소에까지 나가시여 병사들에게 무비의 용맹을 안겨주신 감격의 순간도 있었다. 어퇴정에 오르시여 해병들과 함께 사나운 풍랑길을 헤치시며 전술 훈련을 지도하신 이야기도 있고 침략세력이 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던 때에 적진의 코앞에까지 나가시여 전군을 조국결사수호와 싸움준비강화에로 산악같이 불러일으키신 사실도 있다.

자위적핵억제력강화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

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오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켓개발의 길은 과학의 길이기 전에 끝까지 가야 할 자주의 길, 혁명의 길이라고 하시며 국방과학전사들에게 애국의 녓과 열정을 부어주시고 천재적인 예지와 특출한 과학적통찰력으로 로켓공업의 발전방향과 개발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몹소 총설계가, 결사대장이 되시여 삼복의 무더위와 엄동의 강추위도 가림없이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국방과학전사들과 위험천만한 화선에 함께 계시며 긴장한 전투의 한초한초를 끝까지 결에서 지켜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는 위력한 주체무기, 주체

탄들의 다발적이고 련속적인 성공으로 이어졌다.

두 차례의 수소탄시험에서의 완전성공과 《3.18혁명》, 《7.4혁명》, 7.28의 기적적승리, 11월 29일의 위대한 대승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략적인 결단, 특출한 정치실력,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민족사적대경사, 특대사변들이다. 우리 공화국이 남들이 수십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군사적기적들을 불과 1~2년안에 이룩하며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는것은 중중첩첩 막아서는 시련의 천만고비들을 사생결단의 의지로 강행들과파하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과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세계의 수많은 인사들은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령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군사강국으로 전변시켜나가고계신다. 그이는 세계가 공인하는 희세의 천출명장이시다.》,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사상리론적품모와 높은 령도적자질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그이는 온 세계가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우러러보게 하겠다는 배짱을 지니신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령장이시다.》라고 격찬하고있는것이다.

최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2월의 눈보라치는 백두산정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 백두산정에 오르시여 새기신 뜻깊은 자욱은 우리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으로 더 높이 떠올리실 원대한 응지와 주체조선의 앞길에 최후승리의 려명을 앞당겨오신 력사적인 행보로 빛을 뿌릴것이다.

백두의 기상으로 적대세력의 온갖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정의의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장 철 남



## 섬멸적인 반타격으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획책하고있던 2012년 8월 중순이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무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전날에 내린 비로 미끄럽고 가파로운 길을 뚫으시며 감시소에 오르신 그이께서는 남녘땅을 바라보시면서 적들의 일거일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가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 떨어저도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만약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시였다.

##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세해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밑에 인민군대안의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의 사격경기가 진행되었다.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제정된 거리와 시간에 목표를 쏘아맞힌 점수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사격경기에서 지휘성원들은 평시에 련마한 사격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격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며 인민군대에서 명사수운동을 힘있게 벌려 군인들을 일기, 주야, 계절조건에 관계없이 그 어떤 정황속에서도 나타나는 목표들을 단방에 어김없이 소멸하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들로 키우자면 지휘성원들부터가 명사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지휘성원들이 싸움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고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함으로써 자기의 영예로운 전투입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이전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가 좌절된것을 기화로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데 나섰다. 미국집권자 부쉬는 《오래동안 바라던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떠벌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반미자주적인 조선을 압살하는데로 공격의 총화살을 돌리고 제재와 봉쇄를 더욱 강화하면서 군사적 위협소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렸다.

1991년 1월 중순 패권주의적인 만전쟁도 발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이미 짜놓은 조선반도에서의 《120일전쟁씨나리》에 따라 남조선에서 사상최대규모의 《팀 스피리트 91》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군사분계선일대에 방대한 무력을 내밀었다.

세계는 만전쟁에 이어 조선반도에서 또 한차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우려하고있었다. 하지만 평양의 모습은 태연하였다. 그 배심은 어디에서 오는것이였는가.

나라의 정세가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던 어느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모시고 몇몇 군사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긴박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가 협의되었다. 군사일군들은 만약 적들이 우리 조국의 풀 한포기라도 건드린다면 이번에는 용약 떨쳐나 맞받아치겠다고 하였다.

일군들의 의견을 들으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우리가 맞받아치면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길수 있다고 생

것이 바로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이고 배짱이며 결심이었다. 그이의 대답을 들으신 주석님께서서는 책상을 《탕!》 하고 내리치시며 과시 장군중의 장군이라고 하시고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리고 군사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적들이 우리의 풀 한포기라도 건드린다면 아

릿똥개버리라고 명령하시였다. 그리고 군사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적들이 우리의 풀 한포기라도 건드린다면 아

## 령장의 담력과 지략 (6)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각하는가고 하시였다. 군사일군들은 한결같이 이길수 있다고 하였다.

주석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만약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다시 물으시였다.

뜻밖의 질문을 받은 인민군지휘성원들은 누구도 선뜻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수령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선언은 격변하는 군사정치정세에 대한 정확한 통찰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모든 요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에 기초한 가장 과학적인 명철의 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부대들과 포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이 고도의 전투태세를 갖추는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명령이 하달되었다.

인민군대는 호전세력들의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에 대처하여 강력한 반타격훈련을 맞받아 진행하였다. 완전전투태세를 갖춘 인민군장병들이 빠른 속도로 기동하여 자기 위치들을 차지했고 타격수단들이 적의 숨통을 겨누었고 상대를 맞받아 대응훈련을 하였다. 그러자 미군부대들과 병사들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났으며 결국 적들의 군사연습은 뒤죽박죽이 되고말았다.

미국은 하는수없이 군사연습기간을 단축하고 출동무력을 철수시키는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군부와 정계에서는 《북조선은 무력으로는 굴복시킬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승산없는 전쟁이 다음해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미국은 군사행동을 미루는 길로 나가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언하신것처럼 우리 조선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나라이다. 적대세력과의 대결에서 오직 승리만을 알고 그것을 빛나는 전통으로 자기 력사에 새겨가고있는 조선의 역센 의지와 담력과 무궁무진한 힘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본사기자 주 일 봉

자 위 적 군 령 장 화 의 길 에 서

# 겨레가 경모하는 백두의 녀장군

12월의 이 땅에 위대한 김정숙녀사에 대한 사람들의 다함없는 경모심이 뜨겁게 흐르고있다. 자주로 존엄높고 불패의 군력으로 강대한 주체조선의 자랑스러운 행로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신 김정숙녀사이다.

김정숙녀사는 일찌기 손에 무장을 들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조직력도하신 항일대전에 참전하여 조국해방위업실현에 쌓으신 크나큰 공적과 더불어 항일의 여성영웅, 백두의 녀장군으로 민족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주체6(1917)년 12월 24일 나라의 최북단에 있는 회령의 극빈한 농가에서 탄생하시어 성장하신 김정숙녀사께서는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시었다. 혁명군에 입대하실 때 이 총한자루를 백자루로 알고 잡으며 이 총알 한발을 백발로 알고 원수를 쏘겠다고 굳게 맹세하신 녀사께서는 걸음마다 총탄이 비발치는 사신의 결전장들에서 용감히 싸우시었다. 조선인민이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따르는 위대한 주석님을 결사보위하는것은 녀사의 제일가는 본분이었다. 녀사께서는 잘룩목과 흥기하, 대사하치기를 비롯한 수많은 격전장들에서 한몸이 그대로 방탄벽이 되어 사령부의 안전을 백방으로 보장하시었다.

녀사는 백발백중의 명사수이시고 능숙한 지하정치공작원이시었다. 처창주유격구방위전투, 로령전투, 시난차전투, 홍두산전투를 비롯하여 일제침략군을 통쾌하게 격멸한 수많은 대소전투들마다에서 녀사는 무비의 담력과 립기용변의 지략, 신묘한 사격

술로 승전의 돌파구를 열어놓으시었다. 장백현 도천리와 신파, 연사지구를 비롯한 북부국경일대와 국내에서 비상한 조직력과 원숙한 통솔력, 특유한 친화력으로 지하정치공작 활동을 즐기치게 벌리시어 사령부의 전략전술적의도를 빛나게 관찰하신 녀사의 혁혁한 무훈은 《녀성호걸》, 《백두산항일녀장수》, 《백두산녀장》, 《백두산녀결》이라는 다함없는 호칭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김정숙녀사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열렬한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이다.

녀사께서는 해방후 평양과 남포, 함경남도

와 함경북도를 비롯한 나라의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고찾으시며 인민들을 위대한 주석님의 새 조국건설구상실현에 힘써주시었다. 평양의 보통강개수공사장, 함경북도의 부령야금공장(당시), 평양제사공장(당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미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따라배우고있다.

별, 강선의 제강소를 비롯하여 새 조선건설로 약속하는 조국의 이르는 곳마다에 녀사의 불같은 애국헌신의 자욱이 새겨지었다.

항일의 그날로부터 총대의 귀중함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신 녀사께서는 나라의 군력

을 강화하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원호사업이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되었을 때 녀사께서는 조국보위기금회사사업에 앞장서신것만 보아도 방위력강화를 위하여 얼마나 마음쓰시었다는가를 잘 알수 있는

것이다. 주석님의 정규무력건설구상을 받들고 평양학원과 군사정치간부양성기관들과 인민군부대들을 취임없이 찾시고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지휘관들을 육성하며 군종, 병종, 전문병대모를 꾸리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

시었다. 인민군대의 군기와 군복, 장구류, 무장장비들에도 군건설과 군력강화에 심혈을 기울이신 녀사의 정력적인 보살핌의 손길이 미치지였다.

오늘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 케트까지 가진 필승불패의 무적강군으로 위용떨치는 인민군대의 위력과 무진막강한 공화국의 위상에는 자위적국방력강화에 기울이신 김정숙녀사의 헌신의 노력이 력력히 어러여있다.

김정숙녀사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쌓으신 가장 특출한 업적은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안아주시는것이다. 녀사께서는 항일대전과 새 조국건설의 격동적인 나날 뜨거운 지성 과 로고를 다하시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백두광명성으로, 민족의 향도성으로 받들어올리시었다.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민족자주위업을 즐기치게 이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신것은 녀사께서 나라와 민족앞에 쌓으신 업적중의 가장 큰 업적인것이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끝없는 헌신으로 한생을 다 바치신 김정숙녀사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은 민족사대에 길이 빛나고있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무궁번영을 위한 녀사의 애국의 뜻과 녀원이 어려웠던 민족자주위업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즐기치게 이어지고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조선의 국력은 최상의 경지에 이르고 인민들은 긍지높은 자주적존엄과 행복을 향유하고있다.

본사기자 정 무 림

## 통일애국의 길에 빛나는 고귀한 생애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는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백두의 녀장군이신 김정숙녀사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조국통일은 김정숙녀사께서 최대의 녀원이였으며 삶과 투쟁의 숭고한 목표였다. 녀사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받들고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기울이시었다.

비범한 안목과 식견으로 정세추이와 나라형편을 환히 꿰뚫어보신 녀사께서는 사람들이 남조선에 감정한 미국의 제국주의적침략본성에 대해 옳은 견해를 가지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시었다.

녀사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화제에 올리실 때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련합군》에 참가한것은 전승의 열매를 더 많이 차지하며 전제국들과 《동맹국》들을 지배하고 예속시켜 세계제국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역사적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약탈했는데 어떻게 조선해방을 위해 피를 흘릴수 있었는가, 총 한방 쏘지 않고 피 한방을 흘림이 없이 남조선에 기여든 미군은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이다, 승냥이가 양으로 변

할수 없는것처럼 미국의 침략적본성이 변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하곤하시었다.

위대한 주석님의 발기에 따라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가 소집될 당시에도 녀사께서는 정견과 신앙, 과거경력을 초월하여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련석회의의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시었다.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녀사께서 얼마나 마음을 쓰시며 로고를 바쳐가시었다는가를 전해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끝난지 며칠이 지난 어느날 남조선녀성대표들은 김정숙녀사를 만나뵈게 되었다.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는 녀사께서는 멀고 험한 길을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숙식조건을 비롯하여 그동안 생활에서 불편한 점들은 없었는가, 집을 떠나온지도 10여일이 되니 식구들이 그리웠는지 하시며 폭압이 살판치는 남녘 땅에서 녀성의 몸으로 투쟁해 온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녀사께서는 그날 남북련석회의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련석회의정신을 받들고 더 많은 녀성군을 발동하여 구국투쟁을 힘차게 벌리며 당면하여 《5.10단선》을 파란시키기 위한 투쟁에 힘을 집중할데 대한 문제 등 앞으로의 활동에서 지침으로 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38° 선을 넘어 오느라고 옷이 못쓰게 된 사람이 20여명이나 되는 녀성대표들에게 꼭맞는 조선옷을 해입히도록 하시고 오늘은 또 조국

통일문제와 관련한 뜻깊은 말씀을 하시는데 녀사의 고결한 인품에 녀성대표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언제인가 항일의 전우들이 이제는 백두산시절과는 달리 령도도 있고 주권도 서고 나라의 재부도 많은데 옷 한벌 짜야 왜 못해입으시겠느냐고 말씀올릴 때에도 통일이 되어 모든 겨레가 다같이 잘 입고 잘살 때 우리도 비단옷을 입고 잘살아보자고 하시며 수수하고 검박한 생활을 하시었고 남조선인민들을 미군의 구두발밑에 그냥 두고서야 어떻게 발전잡을 잘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일신의 향락보다 먼저 조국통일을 생각하신 김정숙녀사시었다.

김정숙녀사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은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었다.

나는 평생에 조선은 말할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한다 하는 녀걸들과 녀류명사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김정숙녀사같은분은 어디에도 본적이 없다. 유명한 사격수로 이름떨친 녀장군이신데다 정치적식견과 안목이 뛰어난 정치활동가이시지만 것처럼 현숙하고 상냥하며 소박하고 소탈하신분이 또 어디 있겠는가. 김정숙녀사같은분은 동서고금에 두분도 없을것이다. ...

해방후 평양에서 김정숙녀사를 만나뵈은 남조선의 몽양려운형선생의 감동의 토로였다. 송교현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시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 후손만대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김정숙녀사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는 겨레의 마음속에 길이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진

로인은 고통에 비하면 피정정하였다. 백발이지만 준수한 기품에 강단이 느껴지는 말이나 성격은 내심 보통의 늙은이가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겠다. 문단에 널리 알려진 김일성상계관인인 작가 립금단선생은 나직하나 저저장단이 있는 박력있는 어조로 80년전의 일을 생생히 더듬었다.

... 항일대전이 한창이던 1930년대말 북녘의 신파당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막으려는 일제의 군사요충지의 하나로 경계가 매우 삼엄하였다. 그 무렵인 1937년 여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신파지구에서 나오시었다.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파에 나

오신 녀사께서는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하고 광범한 군중을 반일성정에 불러일으키기 위한 지하정치공작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었다. 사령부의 작전지시상과 의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녀사의 립기용변의 기지와 변화무쌍한 공작활동에 의하여 신파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국광복회조직들이 확대되고 각계층 군중이 반일애국력량에 결속되게 되었다. 신파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하공작원들과 국내혁명가들이 무수히 넘나들고 조국인민들이 조선인민혁명군에 조달하는 원호품들이 백두산지구로 대하처럼 흘러드는 대통로로 되었다.

바로 그 여름날에 립금단선생의 일가가 사는 큰아버지 립원삼의 집이 김정숙녀사께서 리용하신 비밀아지트의 하나로 되었다. 녀사께서는 수시로 립금단의 큰집을 드나드리면서 큰아버지를 비롯한 지하조직성원들과 활동방향도 의논하시고 그들에게 임무도 주시었다. 그때 금단은 5살 소녀였다. 애어

린 소녀의 눈빛에 어려오는 자주빛저고리에 감장치마를 입은 녀사의 모습은 인정 많고 사려깊은 《고운 아지미》였다. 영채도는 존안과 다정한 음성, 인자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녀사께서 것처럼 명성높으신 빨찌산녀장군이시라니 그것을 어린 소녀는 꿈에도 알수 없었다. 김정숙녀사께서 신파땅을 떠나실 때까지 금단은 녀사를 《고운 아지미》로만 알고 따랐다.

녀사께서 립금단일가에게 기울이신 사랑과 정은 자별하였다. 녀사께서는 일을 보시고 그의 집에 오실 때면 빈손으로 오시는 때가 없었다. 신파

장에 들려 연필이며 학습장을 사오기도 하시었다. 자신의 무릎위에 금단을 앉히고 량분을 다독여주시고 머리도 곱게 빗어주시는 녀사께서는 그의 손에 연필을 쥐여주시고 이를 석자며 우리 글을 차근차근 배워주시기도 하시었다. 일제와 밀정들의 살벌한 감시의 눈초리와 위험천만한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적구공작의 나날에 이 립없는 벽촌의 소녀에게 글을 가르쳐주시며 장차 해방된 나라의 역군이 되라고 축복하시며 응심깊은 사랑과 정을 부어 주신 녀사시었다.

신파의 여름날에 김정숙녀사의 슬하에서 배움의 첫걸음을 댄 립금단은 해방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세우신 인민의 나라에서 마음껏 공부하며 희망을 꽃피우게 되었다. 가릴 것없는 조국해방전쟁의 나날에는 주석님의 은정넘친 조치에 의하여 전선에서 대학으로 소환되어 학업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의 앞날의 희망과 포부는 작가가 되는것이였다. 한생

... 서사시 《새싹이 움틀 때》, 《사랑의 노래》, 《백두산의 봄누나》를 비롯한 그의 작품들에는 소시적에 김정숙녀사와 인연을 맺은 로작가의 아름다운 추억과 그리움의 세계가 가득히 차넘치고있다. 사람은 젊어서는 희망에 살고 늙어서는 추억에 산다고 한다. 하지만 립금단선생은 과거에만 파묻혀 말년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로당의장하여 청춘작가의 인생을 살고있다. 항일의 전설적녀성영웅으로, 백두의 녀장군으로 명성높으신 김정숙녀사와 한식솔처럼 지내며 녀사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남다른 행운에 립금단선생의 진할줄 모르는 열정과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것이다. 옛 소녀의 추억에서 사려깊은 인정님과 두터운 친화력을 지니신 김정숙녀사의 고결한 성품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된다.

을 김정숙녀사의 손길에 안기었던 5살 동심에 살며 생활을 사랑하고 시대를 노래하는것이 그의 행복이고 인생의 좌표였다. 소망대로 아동작가가 된 그의 작품 한편한편에 김정숙녀사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옛 소녀의 그리움이 담겨져있다.

어머님의 가슴은 인정의 호수런가요  
끝없이 파도쳐 설레이는 인정의 바다런가요  
깊이도 기슭도 모를 그 인정의 파도에 실려  
가가지기 추억이 하늘의 별처럼 돌아나는 밤

멀리 가까이  
에서 별이 웃는  
이 세상 저 끝까지  
지 들려오누나

... 서사시 《새싹이 움틀 때》, 《사랑의 노래》, 《백두산의 봄누나》를 비롯한 그의 작품들에는 소시적에 김정숙녀사와 인연을 맺은 로작가의 아름다운 추억과 그리움의 세계가 가득히 차넘치고있다. 사람은 젊어서는 희망에 살고 늙어서는 추억에 산다고 한다. 하지만 립금단선생은 과거에만 파묻혀 말년을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로당의장하여 청춘작가의 인생을 살고있다. 항일의 전설적녀성영웅으로, 백두의 녀장군으로 명성높으신 김정숙녀사와 한식솔처럼 지내며 녀사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남다른 행운에 립금단선생의 진할줄 모르는 열정과 영원히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것이다.

옛 소녀의 추억에서 사려깊은 인정님과 두터운 친화력을 지니신 김정숙녀사의 고결한 성품을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게 된다.

본사기자 리 설

장 시

# 어머님의 강국념원 꽃 피었습니다

—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

김 영 일

눈이 내린다  
 행성을 뒤흔든 민족사의 특대사변  
 러처도 끝이 없는 인민의 기쁨이런가  
 환희의 은빛세계 강산가득 펼치며  
 12월의 하늘가에  
 흰눈이 내린다

뜨거운 추억을 불러주며  
 그 눈발속에 숨엄히 어려와라  
 백두의 풀물어린 항일의 군복 입으시고  
 권총집에 손을 얹고계시는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영상이여

우리러 삼가 새겨보나니  
 《11월대사변》의 그날  
 어머니도 권총 높이 추켜드시고  
 민족의 대경사 경축하시어  
 저 하늘에 승리의 총성 울리신듯

깊어지는 생각이여  
 조국과 민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총대와 더불어 빛나는 어머니의 거룩한 한생  
 우리 어찌 한편의 시로 다 노래할수 있으랴

짓밟힌 민족의 딸로 태어나  
 사랑하는 부모형제 일제의 총칼에 다 잃으며  
 총대의 귀중함  
 그러도 뼈저리게 체험하신 우리 어머니

총대가 약해 빼앗긴 조국  
 총대로써만 찾을수 있기에  
 그 총 한자루를  
 백자루로 억세게 들어쥘 어머니  
 항일의 진구마다 뜨겁게 울리셨어라  
 수령결사옹위의 총성  
 친위전사의 총정의 총성을

해방의 환희 넘치던  
 건국의 나날에도  
 항일의 명사수의 그 총성 멈춘적 있었던가

총대로 찾은 조국  
 총대로 더욱 부강하게 하실  
 강국의 절절한 념원을 안고  
 전사들을 찾고찾으신 김정숙어머님

오늘도 우리 마음 적셔주누나  
 제1중앙군관학교졸업식장 주석단에서  
 솟구치는 눈물 감추시려  
 어머니 머리를 숙이고계시는

가슴뜨거운 한장의 사진이여  
 그 기쁜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더라  
 군복입은 끝없는 졸업생들 보시니  
 조국해방을 위해 피흘리던  
 항일의 나날이 어려오고  
 이날을 못 보고 간 전우들이 생각나시어

그 눈물은  
 피에 젖고 땀에 절은 항일의 군복  
 조국해방의 그날  
 남해의 푸른 물에 빨아주시겠다고 하시던  
 그 약속 이루지 못한  
 피로움이었던가 안타까움이었던가

아니면  
 백두의 행군길  
 남해까지 이어놓고  
 전우들과의 그 약속 기어이 지키시려는  
 어머니맹세의 분출이었던가

우리 어이 다 알수 있으랴  
 새 조국건설의 길에서  
 강군, 강국을 위해 남기신  
 어머니 애국의 발자취  
 그 하나하나를 모아 펼치면  
 저 하늘에 빛나는 별무리 되리

땅크훈련장을 찾으시어  
 남들은 몇년이 걸려야 다룰수 있다지만  
 남이 한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열백걸음을 달려야 한다고  
 땅크병들에게 용맹의 노래 달아주시고

가지고오신 만경대 앞담배  
 손수 땅크병들에게 말아주시며  
 조국이 동무들을 믿는다고  
 하루빨리 내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고  
 애국의 념 심어주시던 어머니이야기  
 오늘도 뜨겁게 전해지고있어라  
 《땅크병마라초》 전설과 함께

그 자욱 땅우에만 새겨졌던가  
 우리가 처음 만든 함선도 돌아보시며  
 이런 함선을 더 많이 만들어  
 조국의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조국보위의 항로도 밝혀주시고

사격장에 나오시어서는

명중사격의 묘리도 가르쳐주시고  
 밤새워 군기도 수놓으시며  
 군복도안도 배낭본도 몸소 착안하시며  
 온갖 심혈 기울이신 어머니

서보시라, 사람들이여  
 평천혁명사적지 사격장에  
 우리가 처음 만든 기관단총 들어주시고  
 우리의 총탄시제품으로  
 수령님과 함께 어머니  
 새 조선의 첫 총성 울려주셨거니

어머님 그날에 다 안아보셨으리  
 한자루의 총을 위해  
 사품치는 물결에 휩싸이는 순간에도  
 《동지들! 이 총을 받아주!》  
 마지막힘을 모아 웨쳤던 전우를

한자루의 총이 생명처럼 귀중했기에  
 나어린 내인이 떨구고 온 총  
 그 한자루를 찾으리  
 비발치는 탄우속을 헤치셨던 항일의 그 전  
 장을

아 선렬들 고귀한 그 념을 담아  
 어머니 울리신 평천리의 총성  
 그것은 강대한 내 조국의 고고성이었다  
 주체적국방공업의 새시대를 알리는  
 장엄한 력사의 선언이었다

세월을 넘어 지금도  
 총알처럼 우리를 깨우쳐주누나  
 첫 기관단총 정히 드시고  
 어머니 격정에 겨워 하시던 말씀

—총대가 강해야 나라도 강하고  
 민족의 미래도 담보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닦을 올린 우리의 국방공업  
 오늘은 얼마나 높이 비약했는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대로  
 어머니의 념원대로  
 우리 조국은 자위적핵무력을 그 쫓히  
 갖춘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빛을 뿌리여라

화승총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여  
 주먹으로 눈물을 씻고  
 가슴을 치던 우리 인민  
 오늘은 그 손에

최강의 핵억제력을 틀어쥐었나니  
 사람들이여, 우리 뵈지 않았더냐  
 우리의 《화성—15》형이  
 지구를 박차고 날으던 그날  
 간절한 마음 그리도 앞서 우리 원수님  
 육중한 9축자행발사대차를  
 온몸으로 떠미시던 그 모습을

결사전마냥 나가시던 그 시각  
 우리 원수님 심장에 안고 가셨으리  
 피로써 찾은 조국땅우에  
 주체적국방공업의 만년토대 쌓아주시려  
 그리도 간절히 불태워오신  
 수령님과 어머니의 절절한 그 념원을

한치도 물러설수 없는 《화성》에로의 그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시었으리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시며  
 조국수호의 선군길을 걷고 걸으신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그 체취와

그래서 우리의 《화성》은  
 연료로만 저 우주만리에 오른것이 아니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념원을 이은  
 우리 원수님  
 그이의 총정의 심장이 올린것이아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들에게  
 천하제일강국을 안겨주시려  
 용암마냥 뿜어번지는 강국의 열망안고  
 밤에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앞장에서 온갖 시련 다 헤쳐가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원수님

그이의 자주의 사상과 신념  
 그이의 백철불굴의 공격정신  
 그이의 무한한 창조세계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념원  
 오늘은 이 땅에 만발했거니

아, 민족사의 대경사, 대승리를 축복하며  
 이 아침 눈이 내리는가  
 김정은원수님따라  
 우리 조국 더 우뚝 솟아올리라고  
 끝없이 속삭이며 눈이 내린다  
 어머니의 축복을 안고  
 인민의 마음속에 12월의 눈이 내린다!

위대한 승리와 기적적성  
 파로 수놓아진 2017년에 공  
 화국은 행성을 들었다놓으  
 며 주체의 핵강국건설사에  
 가장 빛나는 장을 아로새  
 기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  
 에서 1년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7년이 안고있  
 는 력사적의미는 날자와  
 시간만으로는 다 헤  
 아릴수 없다. 국가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다발적으로, 련발적  
 으로 이룩된 특대사변들로  
 하여 남들의 몇년, 몇십년  
 파도 대비할수 없는 격동과  
 사변의 날과 달들이었다.

올해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준비  
 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  
 렸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의 영상을 격정속에 우리  
 르던 그때로부터 세계가 조  
 선의 힘이 과연 어떤것인  
 가를 알게 되기까지는 많  
 은 시일이 걸리지 않았다.  
 2017년은 시작부터가 범

상치 않았다.  
 지난 2월 지상대지상중  
 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  
 성—2》형시험발사가 성과  
 적으로 진행되는데 이어 다  
 발적으로, 련발적으로 터  
 쳐오른 국방력강화의 특대  
 사변들이 온 한해를 즐기차  
 게 수놓았다.

지난 3월 주체적로켓공  
 업발전에 특기할 《3.18  
 혁명》으로 세상을 놀래웠  
 다면 5월은 전략무기들의  
 자랑찬 성공속음이 련이어  
 울린 달로 만사람을 격동  
 시켰다.

전승의 환희를 새겨주는  
 7월에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의 련이은  
 시험발사성공으로 온 세  
 계를 놀래웠고 9월에는 대  
 륙간탄도로켓장착용 수  
 소탄시험에서의 대성공으  
 로 하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가 더 높은 단계에 올  
 라섰다.

11월 29일, 이날은 반만  
 년민족사에 영원히 아로새  
 겨질 뜻깊은 날이다. 바로  
 이날 미본토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새형의 대륙간탄  
 도로켓 《화성—15》형의  
 시험발사대성공으로 국가  
 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이 실현되고 강한 군력을  
 갈망하던 민족의 숙원은 빛  
 나는 현실로 되게 되었다.

공화국은 바로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  
 을 굳건히 담보하고 민족  
 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보검을 마  
 련하였다.

어떻게 지닌 존엄이고 어  
 떻게 마련된 승리였던가.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볼수  
 록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  
 위적국방력강화를 위해 바  
 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면불휴의 헌신의 자욱자  
 옥이 뜨겁게 어려온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

념원, 강국념원으로 심장  
 을 불태우시며 병진의 기  
 치를 높이 드시고 승리의  
 길을 즐기차게 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국방과학자들에게 주체  
 무기개발의 종자와 과학적  
 발견의 착상도 띄워주시고  
 실패에 주저않을세라 걸음  
 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안

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헌신의 만단사연은  
 몇백, 몇천권의 책에도 다  
 담지 못할것이다.

올해에 격동적인 승리와  
 기적들이 련발적으로 이룩  
 될 때마다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주체조  
 선의 국력이 그렇듯 비상  
 한 속도로 강화되고 인민  
 의 존엄도, 공화국의 전략  
 적지위도 최상의 경지에 오  
 를수 있었음을 더욱 심장  
 깊이 절감하였다.

하기에 재미동포인터넷  
 신문 《민족통신》은 《우  
 리 민족은 이 행성의 희망  
 이며 미래》라는 글에서 이  
 령게 격찬했다.

《이것이 정녕 꿈인가 생  
 시인가, 이것이 어디 보통  
 일인가, 이것이 어디 말처  
 럼 그리 쉬운 일인가, 이것  
 은 이 민족의 힘으로 만들  
 어진 힘의 실체, 바로 주체  
 조선의 실체이다. ...  
 오늘의 승리는 우  
 연이 아닌 필연이다.  
 그 필연의 한가운데  
 서계시는분이 바로 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시다.

그이는 해외동포들을  
 포함한 우리 민족전체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그이의 무비의 배짱과 담력,  
 라협없는 철의 의지가 바로  
 오늘 이 민족적경사를 이루  
 어낸 핵심중의 핵심이다.

세계는 이제 우리 민족  
 이 이룩한 대업에 대한 선  
 망과 공경심을 안고 이 동  
 방의 불빛을 보며 따라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춘 경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시험발사

# 태양의 따사로운 빛발아래 꽃피나는 만복의 꿈

가슴벅찬 환희와 걱정속에 맞고보낸 이해를 돌이켜보는 인민의 가슴마다에 2017년 신년사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뜨거운 음성이 메아리쳐온다.

《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

하여 헌신분투할것이며 리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아들여나가는 인민의 집단적 행복, 충실한 심부름꾼이 될것을 새해의 이 아침에 엄숙히 맹약하는바입니다.》

이 엄숙한 맹약을 안으시고 새해벽두부터 연말까지 우리 원수님 헤쳐가신 강행군길에 승고한 인민사랑의 전설들이 그 얼마나 많이도 태어났는가.

## 절세위인의 새해 첫 현지도와 《소나무》책가방

올해의 정초 이 행성에서 세계사변의 중심으로 만인의 이목을 끌어당기고있는 사회주의조선의 첫 소식에 세상이 놀란것은 아이들의 소박한 책가방과 관련된것이었다.

1월 4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가방공장에 새해 첫 현지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기시었다.

울긋불긋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가방들이 가득 진렬된것을 보시고 별세상에 와본것 같은 오늘을 잊지 못할것 같다고, 동심이 넘친 가방앞에서 아이들이 평강히 좋아하겠다고 만사를 잊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현지도의 길에서 한손에는 책가방을 다른 손에는 악기와 소지품들을 들고 학교로 가는 학생들의 모습에 가슴이 저려오시어 우리 원수님께서 아이들이 우리가 만든 멋진 배낭식가방을 메고 학교로 오가면서 행복하게 웃고 떠들게 하자고 말씀하시며 가방생산을 증대한 국사로 내세우시었다.

때로는 도안가들의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자신께서 연구하시던 100여페이지나 되는 참고자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 포근한 이불에 어린 열과 정의 세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의 두번째 현지도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꾸려진 이불생산공장을 찾아주시었다.

여기서 비단천, 명주솜과 같이 우리의 원료, 자체로 만든 겨울이불, 여름이불, 봄가을이불, 결혼식이불들이 황홀함과 우아함을 한껏 자랑하며 폭포처럼 쏟아지는것을 보시고 우리 원수님 얼마나 기뻐하시었는가.

생산에 리용되는 자체도 모두 우리의것이라고, 냉변전직공장을 비롯한 우리 나라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비단천과 명주솜을 가지고 여러가지 이불들을 만들고있는데 얼마나 좋은가고, 며칠전 새로 건설된 평양가방공장에 가서는 가방폭포를 보았고 오늘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와서는 이불폭포를 보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다고 그토록 만족해하신 우리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공업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는가 못 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 인민사랑의 대기념비—려명거리

4월 13일, 온갖 꽃 화창한 평양에서는 웅장화려한 렬명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아담한 다층건축군, 웅장화려한 초고층건축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조형화, 예술화, 특색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어 주체건축예술과 사회주의문명의 정수를 이룬 렬명거리! 렬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

때로는 몸소 가방도안가, 제작가가 되시어 450여건의 도안들을 한장한장 보아주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우리 원수님.

이렇듯 우리 어린이들의 밝고 행복넘친 웃음소리가 더 높고, 더 멀리 울려 퍼지도록 하기 위해 억만자루의 품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는 위대한 아버지의 승고한 후대사랑에 떠날뉘러 《소나무》책가방이 태어났다.

평온한 나날에, 모든것이 풍족한 때에 마련된 책가방이라면 이처럼 우리의 가슴 걱정으로 세차게 끓어오르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의 얼굴에 그들이 비끼는 사회제도는 아무리 길보기에 변적거리도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이 활짝 웃는 나라에서는 앞날이 환히 보인다.

소나무! 책가방은 비록 작아도 거기에는 우리의 귀여운 꽃봉오리들이 자기의것, 우리의것이 제 일이라는 애국의 넋을 간직하고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역세게 자라 세계에 조선이란 이름을 더 높이 떨치기를 바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 같은 뜻이 깃들어있는것이다.

고 하시면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인민들의 인기가 있는 질 좋은 이불들을 짙짙 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이불 하나를 보시고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먼저 헤아리시고 상품을 대하는 인민들의 마음에 당정책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르며 사랑들은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은 나라는 물론 남조선과 해외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세 인을 감동케 하는 두번째 애민행보》, 《김정은위원장각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은 근로인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 《사회주의정치외교의 상징—이불폭포》...

강산에 엄동의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열화의 인민사랑이 포근한 이불되어 은 나라 인민을 감싸주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세상은 그러도 따뜻한것이다.

건설이 아니었다. 우리를 압살하려는 원수들의 정수리에 몇백발의 핵폭탄을 터뜨린것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안기고 나라의 강대성과 국력을 세계만방에 힘있게 떨치기 위한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 사회주의결사수호전이였으며 인민의 꿈과 리상이 꽃피는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

기 위한 자력자강의 창조대전이였다.

사회주의승리의 렬명을 알리며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렬명거리는 교육자들과 과학자, 인민들을 위해 우리 당이 펼친 또 하나의 만복의 별천지였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기쁨에서 혁명하는 보람과 생의 희열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렬명거리준공페트를 끊으시는 자애로운 영상

## 고기포, 우유포, 알포로 전변된 대규모축산기지

눈포, 비포, 바람포로 유명하여 수수천년 버림받던 불모의 땅 세포지구.

바로 이곳에 오늘날에는 염소포, 양포, 소포가 흐르는 사회주의청춘대지가 펼쳐져 만사람의 마음을 흥그롭게 하고있다.

세포, 평강, 이천군을 포괄하는 5만여정보의 드넓은 등판에 눈뿌리 아득히 펼쳐진 대초원, 수백정보의 바람막이숲과 1만 2 600여정보의 풀판보호림, 2 000여km의 방목도로와 360여km의 배수로, 수천동의 살림집과 집집승우리, 공공건물, 수의방역시설들, 축산물가공기지 등을 갖춘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대축산기지.

세포등판에 펼쳐진 천지개벽은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명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로고와 실험을 바쳐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애민헌신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힘있게 밀고나가며 인민군대가 그 앞장에 서도록 하여주시고 주체104(2015)년 1월 28일에는 역사적

## 붉은 사과 바다

지난 9월 강성변영하는 내조국땅에 또 하나의 회한한 과일대풍소식이 전해졌다.

어제는 원홍과 철령아래 고산에, 오늘은 서해의 백리청춘과원에 펼쳐진 붉은 사과바다. 이것은 인민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먹고싶어하신 우리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내 나라를 파수의 나라,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전변시키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애민의 뜻과 헌신의 로고가 펼친 사회주의대전경화이다.

사과향이 한껏 넘쳐나는 과일군에 몸소 찾아오시어 꺾어도 많이 달렸다고,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지금껏 쌓였던 피로가 씻은듯이 사라진다고 하시며 어깨춤이 절로 나온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그 영상을 우리 인민들은 눈물속에 우러렸다.

사과대풍을 이룩한 과일군인민들에게 평양시민들과 자신의 마음까지 합쳐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몸소 허리굽혀 인사까지 하시던 그 사랑의 화폭앞에 어찌 하늘땅도 감복하지 않을수 있었으랴.

한그루, 한그루의 과일나무마다에 자기들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과일군인민들

## 가벼운 신발에 어린 인민사랑의 무게

에로부터 인간생활에서 발은 날개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신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다.

인민들에게 사철운동신발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을 활짝 꽃피우시려 류원신발공장을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

을 우리르며 우리 인민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었고 세계는 환희에 잠겼다.

《(북조선봉괴설)을 내돌리는 미국과 서방의 어용나팔수들, 망상가들의 면상을 보기 좋게 후려친 통쾌한 사변》, 《자기 렬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북인민들의 일심단결, 이것은 가장 승고한 사상과 가장 깨끗한 사랑과 의리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기적의 힘을 낳는 위력한 원천으로 되고 있다.》...

## 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

로작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를 발표하시어 축산기지건설의 강령적 지침을 밝혀주시신 우리 원수님.

화물자동차와 트랙토르를 비롯한 룬전기재, 설비들과 축산업발전의 세계적추세와 관련한 도서들도 보내주시고 돌격대원들에게 뜨거운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와 한량같은 사랑에 의하여 세포등판은 고기포, 우유포, 알포로 전변되어 절세위인의 은정을 세세년전 전해가게 되었다.

《수수천년의 재앙도 만복의 터전으로 길들이는 애민정신의 힘은 실로 무한하다.》, 《이지구촌이 황폐화되여갈 때 복의 세포에 펼쳐진 축산기지 만사람의 경관 집중》, 《자연의 황포 깃누른 인간의 힘, 그 근저는 주체사상, 일심단결》...

천지개벽이라는 말로는 다 형용할수 없는 세포지구의 전변소식에 접한 남조선인민들과 이곳을 찾았던 외국인들이 터진 걱정의 토로는 끝이 없었다.

천지개벽이라는 말로는 다 형용할수 없는 세포지구의 전변소식에 접한 남조선인민들과 이곳을 찾았던 외국인들이 터진 걱정의 토로는 끝이 없었다.

## 의 당에 대한 충정심, 불타는 애국심이 어려 있어 사과밭들이 더 붉게 보인다고 하시며 과일군에 대한 노래가 없는가고, 노래를 짓는다면 제목을 어떻게 달면 좋겠는가 그리도 기뻐하신 인민의 아버지.

어찌 그뿐이라. 현지도의 그날 과수연구소 복도에 그려진 인공지구위성을 보시고 저 그림대신 한그루에 사과 300알 달린 나무를 그려놓으면 더 좋을것 같다고, 그게 핵폭탄보다 더 위력하지 않는가고 호랑치 웃으시며 오늘날의 우리 사과가 안고있는 천만근의 무게에 대하여 일깨워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이 지금도 우리모두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정녕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 국력의 상징이란 대목간단토로 복드나 위정만이 아니었다. 행복의 늑금말을 마음껏 맛보며 이 세상 만복을 한껏 누리는 인민의 웃음이 바로 국력의 진짜상징의 하나였다.

사람들이여, 이 땅의 열매가 자연의 혜택속에 저절로 무르익는것이라고 생각지 마시라. 실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타는 인민사랑이 어리어 그리도 붉은 사과바다였다.

위,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전변시켜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10월 현지를 몸소 찾으시었다.

그날 우리 원수님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운동신발들의 가지수가 대단히 많고 맵시있으며 질이 좋다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운동신발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운동신발, 체육신발들을 신고 기뻐할 인민들과 아이들, 체육인들을 생각하니 정말 흐뭇하다고 그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였던가.

제화직장에 들리시어 여기에 전시된 축구화를 선수들에게 신겨보았는가를 제일먼저 물어보시고 공장에서 운영하는 신발상점에 가시여서는 신발을 신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싶어할 사람들의 마음속생각까지 헤아리시어 꼭 거울을 설치해줄데 대하여 당부하신것을 비롯하여 그이께서는 새기시는 자욱마다에서 인민사랑의 가슴 뜨거운 화폭을 펼치시었다.

## 류원신발공장의 전경을 보

바다 먼 고장에서 울리는 풍어의 노래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새로 태어난 공장!

평안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힘을 믿고 앞날을 낙관하며 펼쳐일어나 일떠세운 고귀한 창조물!

이것은 지난 11월 순천메기공장을 몸소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곳 공장에 안겨주시신 값높은 평가이다.

바다 먼 고장에서 풍어의 노래소리 높이 울려가는 순천메기공장의 자랑찬 성과속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렬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리어있다.

지금으로부터 2년전, 2015년 12월 평안남도에서 순천지구에 다른 도들보다 먼저 능력이 큰 메기공장을 잘 건설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설계형성안으로부터 건설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관심을 들리시며 공장건설전반을 이끌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사랑, 그 은정에 떠받들

## 봉쇄의 쇠사슬을 무자비하게 끊어버리는 자력자강의 무쇠철마들

《북은 사회주의강국건설목표가 결코 리상이 아닌 눈앞의 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력자강의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봉쇄와 침략책동에도 끄떡없이 사회주의한길로 꽃피어나고있다.》,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변은 이 나라 정책이 인민적이며 그 진로가 정확하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이것은 지난 12월 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거행된 새형의 80hp트랙토르들과 5t급화물자동차들의 자력갱생열병식소식에 접한 세계가 터진 경관과 환희의 목소리였다.

금성트랙토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준비하게 서있는 수백대의 새형의 80hp트랙토르들과 새형의 5t급화물자동차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정말 불만 하다고, 대단한 성과라고, 우리 로동계급이 자기의 힘을 믿고 펼쳐일어나 만들어낸 조선의 트랙토르, 자동차들이라고 하시면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 안아온 고귀한 창조물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었다.

우리 원수님께서서는 힘있게 언명하시었다. 시간과 정의는 우리 편에 있으며 우리의 자강력은 엄혹한 시련속에서 천백배로 강해지고 있다. 새형의 트랙토르는 단순한 룬전기재가 아니라 적대세력들의 봉쇄의 쇠사슬을 무자비하게 끊고 경제강국의 지름

고 또 보시며 내놓고 자랑할 만 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마련된 또 하나의 재부라고, 공장에서 높이 울리고있는 생산중산의 동음소리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부강변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천만근민의 힘찬 진군가로 들린다고 힘주어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정녕 다종화, 다색화된 하나하나의 운동신발들은 비록 가벼워도 우리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크나큰 무게가 실려있어 결코 무심히 볼수 없는 것이다.

## 려 순천메기공장은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짧은 기간에 공사를 끝내고 생산에 들어가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연간 1 200t의 생산능력을 자랑하는 굴지의 메기양어기지로 훌륭히 꾸러지게 되었다.

현지도의 그날 순천메기공장이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뜻깊은것을 메기들이 육설거리고있는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랭동고들마다에 랭동한 메기들이 그득히 쌓여있는데 볼수록 흐뭇하다고 하시며 메기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탄부들을 비롯한 도내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마음이 흥그려워진다고 것처럼 만족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르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솟구치는 걱정의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진정 위인의 손길이 가닿는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이렇듯 회한한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전경이 눈부시게 펼쳐지는것 아니라.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이렇듯 회한한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전경이 눈부시게 펼쳐지는것 아니라.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이렇듯 회한한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전경이 눈부시게 펼쳐지는것 아니라.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이렇듯 회한한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전경이 눈부시게 펼쳐지는것 아니라.

## 길은 힘차게 열어제끼는 자력자강의 무쇠철마이다. 우리가 만든 화물자동차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름마다에서 세상이 보란듯이 질풍처럼 내달리며 천만근민의 가슴마다에 무궁무진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게 될것이다...

새형의 트랙토르와 자동차에 오르시어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조선이 나아갈 자력자강의 불변궤도를 그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 백승의 궤도, 불변의 침로를 따라 우리 인민은 오직 곧바로 폭풍노도치며 최후승리에로 나아간다.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것을 우리 당의 혁명적당풍으로 내세우시고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정화인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인민사랑의 위대한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끝없는 헌신과 로고가 그대로 행복의 풍성한 열매로 주렁진 주체106(2017)년.

잊지 못할 그 나날에 꽃피던 인민사랑의 하얗은 전설들을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원수들이 우리의 기쁨과 웃음, 꿈과 미래를 갈망하려고 제 아무리 체제압살의 광풍을 몰아와도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 위대한 행복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

김 연 이

한해가 저물어가고있다. 올해 남조선에서는 박근혜역적패당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새 《정권》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북남관계는 아직까지도 최악의 파국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군사적긴장이 감돌고있다.

오늘날 북남관계가 개선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전쟁불구름이 조선반도에 짙게 드리우게 된것은 현 남조선당국이 집권한 이후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반공화국고립압살과 동족대결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온데 주되는 원인이 있다.

북남관계파국의 밑바닥에는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이 깔려있는것이다.

알려진것처럼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그 무슨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이라는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을 들고나왔다.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론은 《초강도제재와 압박》을 가하여 그 누구의 《핵폐기》를 실현한다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의 전략적목표가 《핵문제해결》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 지나온 한해가 보여준 교훈

핵문제는 북남관계와 아무런 인연이 없는 문제이다.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공갈과 침략위협때문에 산생된 핵문제는 철저히 조미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아무런 명분도 자격도 없는 현 남조선당국이 《핵문제해결》을 부르짖으며 대결정책을 내들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제재압박에 미쳐날뛰므로써 결국 북남관계는 개선의 궤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계속 파국으로 줄달음쳐왔다.

남조선당국은 집권후 반년남짓한 기간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해치기 위한 군사적도발에 광분함으로써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켰었다.

지난 6월에는 미국의 《칼빈슨》호, 《로널드 레간》호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끌어들이어 8월에도 미국과의 연합탄도미사일발사훈련,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공중연합타격훈련,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 등을 련이어 감행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긴

장시키었다. 10월 중순에는 조선동해상에서 미국과 함께 연합해상훈련을 벌려놓았으며 11월에는 미국, 오스트랄리아와 연합해양차단훈련을 감행하고 3개의 미핵항공모함타격단을 끌어들이어 연합해상훈련을 벌려놓았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12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공군의 스텔스전투기와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200여대의 비행기들과 수만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공중임무명령서》까지 적용하며 감행한 사상최대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는 여론들이 평한것처럼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었다.

남조선에서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과 전면전도발을 노린 대규모의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이 끊임없이 감행됨으로써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극도의 긴장상태가 항시적으로 조성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심히 유린당

하게 되었다. 외세는 우리 강토와 민족을들로 갈라놓은 분렬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훼방꾼이다. 외세에 의존하여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를 개선할수 없으며 외세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은 북남관계의 파국으로 이어지기마련이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력사의 이교훈을 명심하고 응당 민족자주의 길로 나아가야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당국은 집권 첫날부터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기 위해 분별없이 날뛰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입만 터지면 미국과의 《동맹》은 《외교안보정책의 근간》이고 《추추돌같은 존재》라느니,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느니 하는 얼빠진 나발들을 불어냈다. 집권자부터가 자기의 《대북정책》기조가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정책과 차

이가 없다느니,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느니 하는 따위의 수작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뱉었다. 이것은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의 길로 질주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었다.

동족에 대한 체질적이며 병적인 적대감이 골수에 짝 들어찬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켓트들의 련이 시험발사성공을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제재압박의 도수를 한층 높이기 위한 계기로 삼았다.

남조선집권자가 나서서 《무모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쫓겨대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고 피대를 돌구었는가 하면 수하줄개들도 저저마다 《유엔결의에 대한 정면위반》이니, 《단호한 대응》이니 하고 떠들어대며 《초강도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고약한 수작을 내뱉었다.

공화국이 자위적인 핵억제력 강화조치를 취할 때마다 남조

선집권자는 그 무슨 《안전보장회의》라는것을 소집하고 미국과의 《군긴한 동맹》을 바탕으로 《대비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비린청을 돌구었는가 하면 쩌하면 미국, 일본상전들에게 전화통을 걸어 《실효적인 제재방안 마련》과 《강력한 제재압박》을 애걸하였다. 외교부와 국방부패거리들도 《효율적인 제재》와 《실질적인 군사적대응》에 대해 떠들며 국제사회와의 《압박공조》를 강화한다, 미핵전략자산들의 조선반도순환배치를 확대한다 어떤다 하며 분주당을 피워냈다.

민족자주를 외면하고 외세와 공조하여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기승을 부릴수록 북남관계개선 길은 더욱 멀어지고 조선반도의 대결과 긴장만 격화되게 된다는것은 오늘의 현실이 심각한 교훈으로 깨우쳐주고있다.

외세공조와 민족반역의 길로 줄달음쳐가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역적패당의 비참한 말로가 보여주는것처럼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을 기다리고있는것은 수치와 파멸뿐이다.

김진혁

## - 대 글 에 비 낀 남 녀 의 민 심 -

《패이 크거나 함파면 북동항기 강동자》

공화국에서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가 대성공한 이후 남조선의 인터넷가입자들속에서 찬탄의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그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미국본토진역을 타격할수 있는 초대형중량급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신형대륙간탄도로켓트무기체계를 보유함으로써 공화국이 명실공히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다고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가입자는 《부럽다. 이제 북은 미국도 함부로 못대하는 강대국이다.》고 격찬하였으며 다른 가입자는 《멋있다. 자주국방. 난 나의 길을 간다. 자긍심》이라고 자기의 격정을 토로하였다. 《금직한 선물전달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워싱턴D.C. 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소리가 속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전역타격이 가능합니다.》고 탄복한 가입자가 있는가 하면 《북의 최첨단 핵대국으로의 전변에 오히려 우리는 안도한다. 수리아를 보라. 마지막엔 어떤 나라도 힘없는 령토, 국민을 지킬수 없다.》라고 쓴 가입자도 있다.

이번 시험발사대성공이 공화국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결과라고 하면서 남조선의 한심한 과학기술실패를 비난하는 목소리들도 울려나오고있다.

《〈한국〉이 돈만 들어가고 깡깡대는걸 북은 성공했네. 우린 1단추진체기술력이 없어서 로씨야한테 돈주고 인공위성 쏘아올리는데 북의 기술력급진전은 대단하다. 북한 로씨야보다 좀 싸게 해달라 하고 돈주고 기술력도 배우는게 더 빠를듯.》이라고 하는가 하면 《북의 기술이 저렇게 발전하는동안 우린 뭘했지. 총알에 뿜리는 방탄복 만 들었나.》, 《북의 군사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 우리 리명박근혜 9년동안 대체 뭐한 거야.》, 《과학승배관 이런것이다.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 《의사, 변호사, 회사밖에 모르고 과학자는 공돌이 취급하는 남조선보다 낫네.》라고 한 가입자들도 있다.

민족이 힘을 합쳐 그 누구도 범접 못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우자는 목소리들도 울려나오고있다.

한 가입자는 《통일되면 저것이 우리 민족의 자산으로 되어 미국과 대등해진다.》라고 했는가 하면 《언제까지 남북갈등으로 갈라져 싸워야 하나. 이젠 화합해서 북기술과 남기술 합쳐 강대국 만들자.》고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울려나오고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경이적인 사변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그이를 모시여 민족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고 한목소리로 웨치고있다.

한 가 입 자 는 《김정은위원장님은 솔직히 우리 민족의 영웅이시다. 북의 슈퍼수소탄, 울트라EMP, 최첨단고체SLBM, 고도 5000km 원형극대도위성 등이 없었다면 〈한〉 반도는 벌써 전화로 휩싸였을것이다. 그러니 수리아보다 더 험한 꼴을 당했는지도 모를 우리 나라를 전시에 작전권도 없는 주접이가 〈한〉 반도를 전성으로부터 막을수 있을가.》고 토로했으며 또 다른 가입자는 《장백산 줄기내려 장군님 높이 모신 환호성 울려가네. 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어 내 조국, 내 민족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김정은장군 만세!》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바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이 인터넷상에서 터친 이 격찬의 소리들은 미국을 알아레로 굽어보는 강대국으로 우뚝 올라선 공화국에 대한 부러움과 경탄의 웨침이 구성민의 령수, 조국통일의 구성만을 믿고 따를 의지의 분출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 강제압치는 중대인권유린범죄

최근 남조선을 방문한 유엔 《북인권》특별보고관 킨라나가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집단

압치된 공화국여성들과의 직접 면담을 남조선당국에 요구하였는가 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을 만나 《북조선의 여성종업원들이 망명에 동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유엔총회에 제출되었다는것을 알려주면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는 또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북조선여성들이 압치되었을수도 있다는 혐의가 있다.》, 《그들의 〈한국〉 입국이 자의에 의한 결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으며 남조선에 강제역류되어있는 공화국주민 김련희녀성과도 면담하였다.

문제는 공화국의 해당 기관들과 피해자가족들의 거듭되는 요구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리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남조선에 강제역류

되어있는 공화국공민들의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는데 있다.

지난해 해외에서 12명의 공화국여성공민들이 남조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1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하루아침에 생때같은 자식들을 잃은 피해자가족들이 겪은 가슴터지는 고통에 대해 말하자면 끝이 없다. 남조선에 끌려간 공화국여성들 도 강한 정신적충격과 신경과민, 육체적고통으로 하여 시급한 의료방조를 받아야 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참을수 없는 인신모욕과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당하는 수치를 느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여성들을 외부와 완전히 격폐된 곳에 분산감금해놓고 야만적인 《귀순공작》을 벌리면서 그들이 《사회에 배출되어 정착》하였다는 기만여론을 내들리다 못해 《강제결혼》시키려는 모략극까지 꾸

미었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유린의 극치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실제로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고 공정성이 있다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거수기가 되어 공화국을 모해하는 불순한 인권모략소동에 가담할것이 아니라 보수패당이 감행한 친인공노할 반인륜범죄의 진상을 밝혀내고 공화국공민들을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지금 공화국에 있는 압치피해자가족들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은 강제역류된 공화국공민들을 당장 돌려보낼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집단적인 유인압치는 중대한 인권유린범죄이다.

유엔이 인권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더 낮을 돌려야 한다.

림재철

## 징벌의 불소나기를 청하는 우둔한 망동

지금 은 세계가 조선반도정세를 심각한 우려와 불안속에 주시하는 가운데 사태는 더욱더 험악한 국면으로 치닫고있다.

군사적도발에 환장하여 리성을 잃고 전쟁풍구질을 마구해대는 남조선당국의 분별없는 망동이 사태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어가고있기때문이다.

얼마전에도 남조선당국은 군부호전광들을 내몰아 미국과 함께 유사시 《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는 합동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세계적인 핵강국인

공화국의 위력에 전철한 침략자, 도발자들의 발악적책동으로서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제거》의 구실밑에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려는 내외호전광들의 극히 무모한 기도의 발로이다.

공화국이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을 막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믿음직하게 지키기 위해서이다.

공화국의 핵억제력이야말로 평화수호의 보검이며 민족의 밝은 미래를 확고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재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동족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에 대해 목정에 빠대기가 걸린듯이 악을 써대며 외세와 작당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해 지랄발광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최신형스텔스

전투기들을 포함한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감행하였으며 이보다 앞서서는 3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을 조선반도수역에 전개하고 대규모연합해상훈련도 감행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외세와 함께 광란적으로 감행한 대규모연합해상훈련과 연합공중훈련들은 공화국의 전략적중심과 중요거점들에 대한 선제적인 《정밀타격》과 기습점령능력을 숙달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었다.

남조선당국이 온 한해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을 뺏질나게 끌어들이어 온 남녘땅을 북침전쟁화악내로 짝 뒤덮으며 조선반도를 항시적인 긴장속에 몰아넣은것이 무엇때문인가 하는것이 날이 갈수록 더욱 명백해지고있다.

인류력사에는 나라와 민족을 반역한 반역배들의 죄악이 수없이 기록되어있다. 하

지만 남조선당국처럼 동족압살에 환장이 되어 제 땅을 외세의 침략전쟁기지로 통채로 섬겨바치고 그와 공모결탁하여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재난까지 들춰우려고 발악하는 매국역적의 무리는 일찌기 없었다.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전쟁위험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는 공화국의 핵보검을 외세의 전쟁머슴군에 불과한 남조선군부장제들따위가 어찌보겠다는것이야말로 화약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이다.

외세와 야합한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군사적도전은 공화국으로 하여금 자주전수호를 위한 최후결전의비를 더욱 억세게 다지게 해줄뿐이다.

미국의 북침전쟁돌격대로 나서보았잖아 차례질것은 개죽음뿐이라는것을 남조선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주광일

## 위험천만한 군사적결락소동

남조선의 호전광들이 공화국의 전략탄도로켓트발사를 《탐지 및 추적》한다는 구실밑에 지난 11일과 12일 조선반도주변해상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미싸일경보훈련을 또 다시 감행하였다.

호전광들이 그 누구의 《핵

및 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미일상전들과 야합하여 미싸일경보훈련을 련이어 벌린것은 미일남조선3각 군사동맹구축을 다그치기 위함이다.

호전광들이 미국주도의 3각 군사동맹에 적극 가담하려 한

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하는 길이 초발민심을 거역하고 민족을 배반하는 길이라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사대와 굴종으로 차례질것은

지난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중국을 행각하였다. 이를 두고 지금 남조선의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 배치문제로 무너졌던 《한》중관계를 《회복한 계기》라고 떠들면서 《(한) 중관계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자화자찬하고있다.
삶은 소도 웃다 꾸레미더질노릇이 아닐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얼마전에 있는 남조선집권자의 중국행각은 한마디로 대미추종으로 초래된 대외적고립에서 벗어나보려는 구결행각이었고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를 강화해보려는 동족대결행각이었다.
미국의 침략적인 《싸드》배치문제로 경제문제에서 얼마나 혼이 났던지 이번에 남조선집권자는 중국의 입에서 《싸드》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간이 콩알만 해서 중국당국의 눈치만 보았다. 또 행각을 앞두고 공화국에 대한 전혀 실효성도 없는 그 무슨 《대북제재》라는것을 발표하는 놀음을 벌리면서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에 중국이 동참할것

을 구결하기도 하였다. 보기에도 역겨운 이러한 추태를 두고 남조선 각계가 《굴욕외교》, 《조공외교》라고 한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더우기 가관은 남조선집권자가 온갖 아부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맹대만 받고온것이다.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남조선집권자가 미국에 가서 초청한 주인도 없이 혼자서 식사하는것과 같은 외교관례상 푸대접을 받은것은 좀 나은것이다. 남조선집권자가 참가한 행사장에서 남조선기자들이 집단적인 폭행을 당한것은 남조선의 각계가 평한것처럼 하나 《외교참사》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집권자가 중국행각기간 동안 봉변은 사대굴종으로 차례진 응당한 대접이고 남조선정치사에 기록된 또 하나의 수치스러운 행적이다.
바람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주권과 주대가 없는 남조선당국이 주변대국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그 무슨 《균형외교》를 떠들지만 그로 하여 차례질것은 더 큰 국제적망신과 조소뿐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민심의 적폐청산요구에 칼질한다

최근 남조선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이 리명박역도의 특대형범죄에 가담하였던자들에 대한 구속을 련이어 해제, 기각시키고있는것이 여론의 눈총을 받고있다.
지난 12월 13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리명박역도의 핵심측근인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에 대한 구속명장을 기각시키는 망동을 부리었다.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리명박집권시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먹고 친 《정부》시위를 벌린 전 《어버리런합》 사무총장 추진희와 리명박패당의 방송장악음모책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전 《MBC》 사장 김재철에 대한 구

속명장을 기각시켰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은 싸이버사령부의 대글공작사건주모자로 구속되었던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과 정책실장 임관빈을 석방시켜 리명박에게 바투 다가갔던 검찰수사를 혼란에 빠뜨렸다.
법원이 이렇듯 리명박과 공조결탁된 핵심측근들을 풀어줌으로써 범죄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적여유를 제공하게 되었고 역도에 대한 검찰수사도 지연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법원이 민심의 적폐청산요구에 칼질하고있다, 다 잡게 된 리명박을 놓아주었다, 악질보수판사들의 목을 쳐

야 한다고 분노를 터치면서 《사법부개혁》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리명박역도와 그 패거리들의 특대형범죄가 이미 론박할 여지도 없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에 와서 부정부패의 왕초인 리명박역도의 공범자들을 당치않은 구실을 붙여 련이 풀어놓는 보수적인 판사들의 망동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그자체가 곧 범죄이며 보수 《정권》의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층 민심에 대한 로골적인 무시이고 전면 도전이다.
문제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파멸의 위기에 몰린 보수적패당이 되살아나보려고 악을 쓰며 란동을 부리는것과 때

를 같이하여 법원에 틀고 앉아 이를 뒤받침하고 도와주며 함께 날치는 악질보수판사들때문에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에 큰 제동이 걸리고있다는 것이다.
역적패당과 결탁된 보수적인 판사들을 그대로 두면 남조선 각계층의 적폐청산요구가 공허한 메아리로 되고 초콜렛쟁의 결과가 여지없이 말살당하는 비극적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남조선에서 초콜렛민심의 요구를 끝까지 실현하자면 보수패당의 시녀노릇을 하는 보수경향의 악질판사들부터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본사기자 김 련 옥

정유년의 친일역적

얼마전 남조선의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일본을 돌아치면서 《북핵을 용인할수 없다》, 《북핵제거를 위해 전술핵무기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 《북과의 힘의 균형을 위한 나토식 《한미일 핵동맹》을 무어야 한다》고 고아였다. 홍준표는 언론들과의 기자회견과 일본의 정객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이 온다》, 《남북의 핵균형을 통해 북핵 폐기절차로 가는것이 북핵의 해결책이다》, 《사민당이 북핵문제에서 《한국당》과 같은 립장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떠벌이면서 반공화국대결공조를 부리었다.
이것은 민심의 버림을 받고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난 구우보수두목이 민족의 백년숙적에게 아부하여 제 인기를 올려보려는 추악한 동족대결추태, 사대매국적추태이다.
일본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에 찌지 못할 특대범죄를 저지른 백년숙적이다. 일제는 과거 40여년간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커녕 미화분식하며 재침열에 들떠있는것이 바로 일본반동들이다. 지금도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해 군국주의부활책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해외침략의 첫번째대상으로 조선반도를 정해놓고있다.
《한》미일군사동맹 강화를 애원하며 일본반동들의 재침야욕에 부채질을 해낸 홍준표의 망동은 지난 세기 일제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의 죄악과 다름없는 역적짓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민당이 북핵문제에서 《한국당》과 같은 립장을 취해주기 바란다》고 떠벌이면서 반공화국대결공조를 부리었다.
이것은 민심의 버림을 받고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난 구우보수두목이 민족의 백년숙적에게 아부하여 제 인기를 올려보려는 추악한 동족대결추태, 사대매국적추태이다.
일본으로 말하면 우리 민족에게 천추만대에 찌지 못할 특대범죄를 저지른 백년숙적이다. 일제는 과거 40여년간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최근 남조선당국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구결하면서 비굴하게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일본을 행각한 남조선의 외교부 장관은 일본수상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단결해 대북제재로 북을 압박하는것이 중요하다》, 《일 본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있다》며 반공화국대결공조와 관계개선을 구결하였다.
그는 일본의 무상과의 회담이라는데서도 《북핵 및 미사일도발》과 《북핵공조》나발을 불어댔으며 일본군성노예문제 《합의》의 검토와 관련하여 이 땅에 재앙만을 몰아오는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들은 저들이 지은 죄악으로 하여 민심의 준엄한 징벌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최 광 혁

한편 남조선당국은 일본수상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기 위해 《(대통령)의 조기일본방문을 검토하고있다》고 하면서 외교부 장관의 이번 일본행각이 그 준비를 위해 일환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의 동족압살야망과 친일굴종

선과 아시아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입에 칼을 물고 날뛰고있다. 또한 패망후 70여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저들이 저지른 특대형국가범죄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커녕 오히려 침략력사를 외곡, 미화분식하고 독도강탈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제 《합의》 폐기를 요구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를 묵인해주고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반민족적범죄의 길로 가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백년숙적 일본과 입을 맞추고 동족압살을 모의하며 돌아치는 현 남조선당국의 추태가 박근혜친일역적패당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일본의 과거죄악을 종결산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가 용암처럼 분출하고있는 때에 남조선당국이 대일굴종행위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전체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민족을 등지고 사대와 매국을 일삼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진

청와대에 틀고앉은 미국의 《정책대변자》

아닌 미국과의 친미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집권자가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고있다.
정의용은 《국가안보실》 실장자리에 올라왔기 바쁘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미국무장관과의 《실시간 대화통로》를 설치하는 한편 공화국의 전략적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이들과 대화통

지금 남조선에서는 년말년시를 앞두고 집권자가 첫해에 해놓은 일이 무엇인가, 특히 북남관계가 파국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논의가 분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론의 초점으로 되고있는것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정의용이다.
그것은 지금껏 남조선집권자를 대미추종과 《대북제재압박》으로 부추기고 유도한 기본인물이 정의용이기때문이다.
원래 남조선집권자는 《북핵문제는 주변국가들과의 다자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교부에서 지난

기간 《경험》이 있다는 정의용을 《국가안보실》 실장자리에 올려앉혔다고 한다.
그런데 일찌기 미국에서 류학하면서 송미사대가 체질화된 정의용은 《북핵문제는 다자외교가

화를 가지고 상전의 의도를 청취한 다음 집권자에게 알려주고있으며 집권자가 미국의 늑다리괴수와의 전화통화를 할 때에도 전기간 옆에 앉아 《조언》을 주면서 미국의 《정책대변자》 역할을 하

고있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외교가 우선시되어야 처음부터 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떠벌인 것도 정의용이고 공화국의 대륙간관도르케트장착용 수소탄시험을 결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 《제재결의》 때 2375호가 조작되었을 때 《제재결의》가 생 각보다 는 강도가 낮아 실망스

《정권》때와 달라질리 만무한것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당 국내부에서까지 《정의용이 《종합장관》, 외교부는 보이지 않는다》, 《정의용은 친미분자이다》, 《정의용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취락편락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다 말아먹고있다》는 비난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제판에는 《주권》이 있는것처럼 으시대던 남조선집권자도 결국 정의용에게 놀아나는 꼴이 되었다.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업혀돌아가더니 청와대에 그와 같은 비화가 또 생겨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 명 성



지난 14일 남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최순실추문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최순실에 대한 1심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남조선검찰은 최순실이 박근혜와 공모결탁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700여만US\$의 퇴물을 받아먹었고 대기업들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7 000여만US\$의 자금을 바치도록 강박하였으며 청와대비밀문건들을

물을 받아먹은 박근혜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는 지은데로 가기 마련이다.
온갖 부정부패와 사대매국, 동족대결책동으로 민족을 우롱하고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박근혜역도와 공범집단은 력사의 심판을 절대 면할수 없으며 대대손손 후대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비법적으로 루출한 혐의가 립증되었다고 하면서 징역 25년, 벌금 1억US\$, 추징금 700여만US\$를 구형하였다.
특대형범죄자의 응당한 말로이다.
최순실로 말하면 한갓 무당에 불과한 년으로서 박근혜역도의 정신적지주가 되어 《국정》을 통락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온 남조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나서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언론들, 전문가들은 지금 최순실의 정당, 사회단체, 각계층인민들은 검찰이 최순실에게 징역 25년형을 구형한데 대해 일제히 환영하면서 이제 남조선은 법원의 판결뿐이다. 법원은 초콜렛의 웨침을 잊지 말고 최순실과 추문사건주범들에게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물을 받아먹은 박근혜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는 지은데로 가기 마련이다.
온갖 부정부패와 사대매국, 동족대결책동으로 민족을 우롱하고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박근혜역도와 공범집단은 력사의 심판을 절대 면할수 없으며 대대손손 후대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